

2017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대전교육정책토론회



- ◎ 일시 : 2017년 7월 5일(수) 14:00
-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50

프/ 로/ 그/ 램/

- 진행자 : 박재묵 /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14:00 ~ 14:10 토론회 취지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4:10 ~ 14:50 주제 발표

발제1. : 김영섭 / 대전시교육청 기획조정관
「대전시교육감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발제2. : 이건희 /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한 정책의제」

15:00 ~ 15:40 지정토론

토론 : 박병철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토론 : 성광진 / 대전교육연구소장

토론 : 최한성 /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토론 : 김봉구 /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관장

토론 : 김선숙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사무처장

15:40 ~ 16:10 종합토론 및 폐회

주제발표1 _____

대전시교육감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김 영 섭

대전시교육청 기획조정관

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과제

I. 들어가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이란 국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책임행정, 참다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실행가능한 공약, 미래비전을 제시해주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남발되는 헛된 공약은 조금이라도 잘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금새 알 수 있다. 민주주의제도가 시행된 지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걸었던 우리 국민은 공약의 허와 실에 대해 누구보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공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공약을 100%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늘 상황은 생각과 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역기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모든 공약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다. 실현이 어려울 때는 국민에게 그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바인 것이다.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 그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약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성 속에 고립된 평가를 지양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평가를 통해 더 좋은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II. 교육감의 공약

1. 공약 이행 계획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총장으로 40여년간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고자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 97개 세부사업**의 이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학생, 교사, 직원,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과 수십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해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 복지, 선진형 학교 문화**의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은 **1조 4,607억원**이 소요된다.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여 책임행정과 참다운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좋은 정책공약으로 인정받았다.

교육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과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전국 최초로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진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초·중·고 진로교육표준모델 개발, 진로이력통합관리제도 시범 운영, 유·초·중·고 연계교육모델 개발 보급, 다양한 대학 체험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 일·학습 병행 취업률 제고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놀이통합교육 운영,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프로젝트학습 모델 개발 보급, 학교 밖 체험활동 우수기관 활용 기반 구축, 대학·연구소와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두드림학교 운영, 책과 대화하는 대전교육 프로젝트, 1인 1기 1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체험·실천 중심의 선진교육

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대전교육 지표인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교류 매뉴얼 개발 보급, 학교단위 국외 수업교류의 활성화, 국외 취업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국외 취업 연수 확대, 학생 국외 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단 운영 등 특화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 지진 발생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각성과 철저한 대비를 위해, 안전매뉴얼 제작·보급, 안전체험센터 활용 교육 활성화, 학교급식 안전관리체제 구축, 대전 친구사랑 3운동 전개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구성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 기반 구축, 특수교육 기반 내실화, 돌봄교실 운영 지원체제 확립,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공립 대안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진형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업무 처리 슬림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확대 등 차별화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의 공약 이행 계획은 계획 수립시 상황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2차**에 걸쳐 이행계획을 **변경**하였다.

1차 변경은 사업의 목적과 방법 등의 방향 전환으로 **4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추진계획, 공약사업 명칭, 추진시기, 투자액** 등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재정액은 2억 9,800만원 감소한 1조 4,604억이다.

2차 변경은 적정한 사업의 목표량 설정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투자액 조정을 위하여 **19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추진계획, 투자액, 목표** 등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한 필요 재정은 472억 감소한 1조 4,132억원이다.

공약 이행 계획 변경은 변경 계획 수립 후 **공약이행 시민평가단¹⁾**과 **공약관**

리 시민지원단²⁾의 설문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공약 이행 평가

교육감은 체계적인 공약 이행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2014년 1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에 따라 공약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공약관리 시민지원단**을 공개 모집하여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공약실천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거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기준 공약 이행 평가 결과는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 중 **‘완료’** 또는 **‘이행후 계속 추진’** 사업이 36개로 **84%**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표 1>

교육감 5대 공약의 이행율은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86%)**,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9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86%)**, **미래형 교육복지(57%)**, **선진형 학교문화(89%)**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프로젝트 **‘에듀브릿지 사업’**은 학교급간 단절로 인해 확보되지 못했던 교과와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전국적 행사로 확대·개최하여 대전의 놀이통합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을 재설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 학부모, 시민단체 등 323명으로 구성, 공약사항에 대한 설문 평가

2) 공약관리 시민지원단 : 공개모집을 통해 대전 시민 20명으로 구성, 공약이행 평가 및 자문

넷째, 학생·교직원·학부모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여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간 이해와 배려심을 키워 사랑이 넘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비교적 이행이 더딘 **7개 사업**은 대학생 교육기부 봉사활동 문화 확산, 학교 밖 체험활동 우수기관 활용 기반 구축, ‘학부모보듬위원회’ 구성·운영, 유아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 ‘공립 대안 교육기관’ 설립, 교원 인사제도 개선(승진가산점 신설)이다.

이 중 ‘**학부모보듬위원회**’는 3월 구성을 완료하여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들이 상담·멘토링을 운영하고 있고, **공립 대안 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은 3월 개원하여 입교식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가칭’ **행복학교** 설립 행정예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2018년 설계 및 착공 예정이다.

반면, 특수교육 지원 체제 재정비로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특수교육 전문직 확충**과 ‘**특수교육과**’신설을 약속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전문직 및 부서장 정원을 미승인함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기 과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향후 과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약이행의 투명성을 높여 대전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공약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교육과정-수업-평

가' 연계교육으로 **교육중심, 학생중심**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 여러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독서교육**과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 할 것이며,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의 기본인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교육기회를 고르게 부여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섯째, 모든 교육 주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여 우리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한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며,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표1>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완료도

공약명	핵심 과제	관리 번호	세부사업명	이행완료도
1.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	1-1 단계별 진로교육 강화			이행후계속추진
		1	① 초·중·고 진로교육 표준모델 개발	
		2	② '진로이력통합관리제도' 시범 운영	
	1-2 유·초 연계교육 추진			이행후계속추진
		3	① '유·초 연계 꿈자람과정' 개발 보급	
		4	② 유·초 연계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1-3 초·중·고 연계교육 추진			이행후계속추진
		5	① 초·중·고 연계교육모델 개발 보급	
		6	② 초·중·고 연계교육 운영 내실화 지원	
	1-4 고교·대학 연계 R&E과학프로그램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7	① 대학과의 연계 기반 구축	
		8	②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젝트' 운영	
	1-5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정상추진
		9	①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10	② 교육기부 봉사활동 문화 확산	
1-6 대학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완료	
	11	① 대학 체험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12	② 대학동아리 체험		
1-7 일·학습 병행 산학 맞춤형 교육 확대			이행후계속추진	
	13	① 일·학습 병행 취업을 제고		
	14	② SW마이스터 양성		
	15	③ 'NCS교육과정' 편성·운영		
2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2-1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놀이통합교육 운영			완료
		16	① '놀이통합교육' 운영	
		17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지원	
	2-2 체험·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정상추진
		18	①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19	② '프로젝트학습모델' 개발 보급	
		20	③ 학교 밖 체험활동 우수기관 활용 기반 구축	
	2-3 자기 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통한 학력 향상			이행후계속추진
		21	① '대학 연구사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캠프' 운영	
		22	② 지역자율장학협의회별 공동수업 활성화	
	2-4 「학습클리닉센터」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23	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4	② 「두드림학교」 운영	
	2-5 책과 대화하는 대전교육 프로젝트			이행후계속추진
		25	① 독서교육 활성화	
		26	② 교육공동체 독서문화 확산	
2-6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과학 교육 활성화			이행후계속추진	
	27	①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젝트수업 활성화		
	28	② '수학(과학)자와 함께하는 수학(과학)교실' 운영		
2-7 예술·체육교육 내실화			이행후계속추진	
	29	① '1인1기1예 프로그램' 운영		
	30	②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2-8 선진국 교육내용·제도 도입			이행후계속추진	
	31	① '국제교육교류 매뉴얼' 개발 보급		
	32	② 학교단위 국외 수업교류의 활성화		

공약명	핵심 과제	관리 번호	세부사업명	이행안료도
3. 건강하고 안전한 학 교	2-9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이행후계속추진
		33	① 영어로 수업하는 우수교원 양성	
		34	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내실화	
		35	③ 「English Reading School」 운영	
	2-10 국외 취업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이행후계속추진
		36	① 국외 취업을 위한 협약 체결	
		37	② 국외 취업 기회 확대	
	2-11 스마트교육 활성화			이행후계속추진
		38	① 정보통신윤리·스마트교육 교원연수 강화	
		39	②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40	③ 스마트교육·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2-12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통한 인재 육성			이행후계속추진
		41	① '융합인재교육교과연구회 운영	
		42	② 선도교사 양성·우수 콘텐츠 개발 보급	
	2-13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43	① 학생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44	②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지원단' 운영	
	3. 건강하고 안전한 학 교	3-1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45	①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46	② 「안전체험센터」 활용 교육 활성화	
3-2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행후계속추진	
		47	① 질 높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안정적 지원	
		48	②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제 구축	
3-3 친환경 학습환경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49	① 친환경 녹색교육 및 환경보전 체험교육 강화	
		50	② 아토피(천식)·비만 예방교육 강화	
		51	③ '1교 1촌 결연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3-4 학교폭력 예방·치유프로그램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52	① 학교폭력 예방 우수교 지원 확대	
		53	② '대전 친구사랑 3운동 (고맙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 전개	
		54	③ '학교폭력 가피학생 치유센터' 구축 운영	
3-5 '학부모보듬위원회'제도 신설			정상추진	
	55	① '학부모보듬위원회' 구성·운영		
	56	② 학생참여예산사업자상담 역량 강화		
3-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57	① 학교급별 '학생안전보호실' 설치 확대		
	58	② CCTV 고도화·설치 확대		
3-7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프로그램 운영			이행후계속추진	
	59	① '학업중단숙려제' 고도화		
	60	② 'Wee project' 운영 내실화		
4. 미래형 교육복지	4-1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운영			이행후계속추진
		61	① 추진기획단 구성·설립	
		62	②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구성·운영 활성화	
	4-2 유아교육 지원 강화			정상추진
		63	① 유아교육 기반 구축	
		64	② 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	
		65	③ 유아교육과 신설 추진	
	4-3 특수교육 지원 강화			정상추진
	66	① 특수교육 기반 내실화		
	67	② 북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68	③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공약명	핵심 과제	관리 번호	세부사업명	이행안료도	
	4-4 '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인프라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69	① '돌봄교실' 운영 지원 체제 확립		
		70	② 찾아가(오)는 맞춤형 컨설팅·코칭		
	4-5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체제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71	① 교육비 지원 내실화		
		72	②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지원		
	4-6 「공립형 대안 교육기관」 설립·운영			정상추진	
		73	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74	② 「공립 대안 교육기관」 설립		
	4-7 교육 격차 해소			이행후계속추진	
		75	① 기초학력향상 지원		
		76	②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확충		
	5. 선진형 학교 문화	5-1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이행후계속추진
			77	① 교직 생애주기별 연수 지원 고도화	
		78	② '학습연구년제' 확대 운영		
5-2 교원 업무 경감				이행후계속추진	
		79	① '교원 행정업무 모니터링단' 운영		
		80	② '학교업무 처리 슬림화' 추진		
		81	③ '교무지원전담팀' 운영 활성화		
5-3 교원 인사제도 개선				정상추진	
		82	① '교원자격연수제도' 개선		
		83	② 승진가산점(선택가산점) 신설		
5-4 제자사랑, 스승존경 문화 조성				이행후계속추진	
		84	①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85	② 사도장학금 운영		
5-5 행정실 업무처리 표준화 시스템 구축				완료	
		86	① '행정실 업무 처리 통합 매뉴얼' 개발		
5-6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				이행후계속추진	
		87	① '열린감사제도' 활성화		
		88	②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89	③ 청렴도 평가대상 확대		
5-7 시민 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축				이행후계속추진	
	90	① 학교와 지자체를 연계한 평생학습 활성화			
	91	②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			
	92	③ 「대전평생학습관」 활용도 제고			
5-8 학교회계직 고용 안정화·처우 개선			완료		
	93	①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94	② 학교회계직원 자기개발 기회 확대			
5-9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강화			이행후계속추진		
	95	①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 설명회' 개최			
	96	②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확대			
	97	③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주제발표2 _____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한 정책의제

이 건 회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위한 정책의제

2017. 07. 05. 이 건 회

참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

목차

I 들어가며

II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III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IV 제언

교육통계 : 2016년 대전시 학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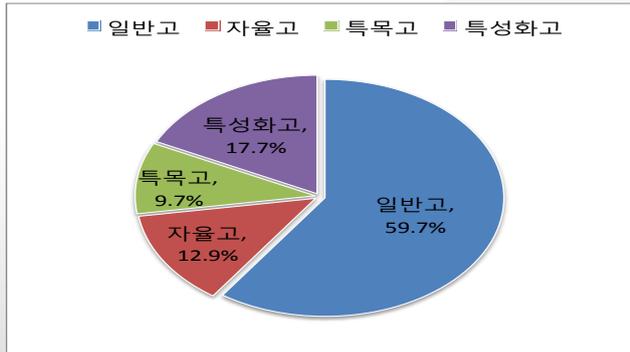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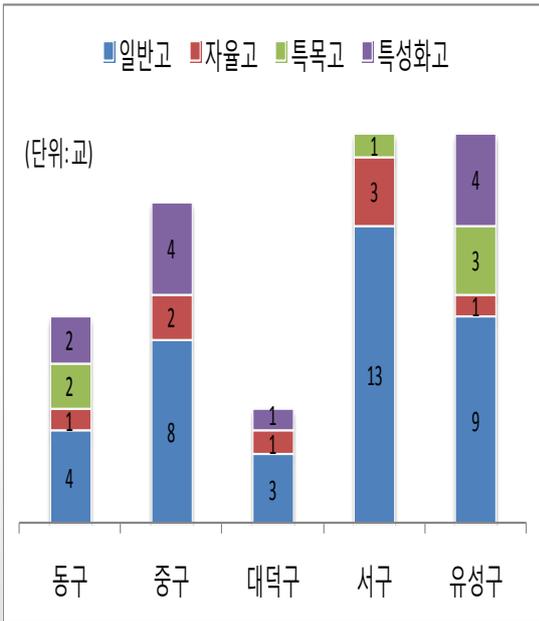
구분	학교수	학생수			
		계	남	여	
총계	계	575(2)	218,492	113,417	105,075
	공립	353(2)	166,426	85,041	81,385
	사립	222	52,066	28,376	23,690
유치원	계	269	25,921	13,348	12,573
	공립	96	4,788	2,489	2,299
	사립	173	21,133	10,859	10,274
초등학교	계	146(2)	85,939	44,360	41,579
	공립	144(2)	84,619	43,714	40,905
	사립	2	1,320	646	674
중학교	계	88	47,646	24,849	22,797
	공립	72	42,391	21,471	20,920
	사립	16	5,255	3,378	1,877
고등학교	계	62	57,087	29,851	27,236
	공립	34	33,146	16,609	16,537
	사립	28	23,941	13,242	10,699
특수학교	계	5	1,059	739	320
	공립	3	696	501	195
	사립	2	363	238	125

교육통계 : 2015년 대전시 사립학교 지원예산

구분	총계(단위 : 천원)
세입합계	330,247,939
이전수입	219,550,166
자체수입	108,117,116
기타	2,580,657
세출합계	328,142,402
인적자원운용	177,473,312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64,185,329
기본적교육활동	17,244,840
선택적교육활동	17,648,014
교육활동지원	11,071,928
학교일반운영	14,503,529
학교시설확충	25,985,949
학교재무활동	29,503

※ 2015년 대전시교육청 세출총예산은 1,658,865,034천원으로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전체의 **19.78%**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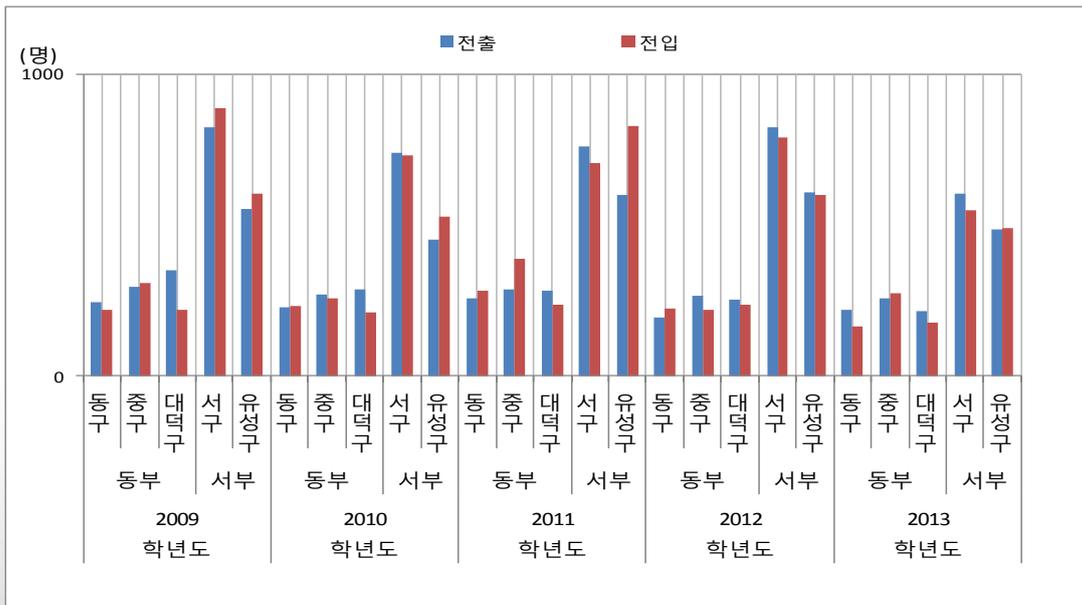
교육통계 : 고등학교 유형별 분류



행정구역별 · 유형별 고등학교 학교수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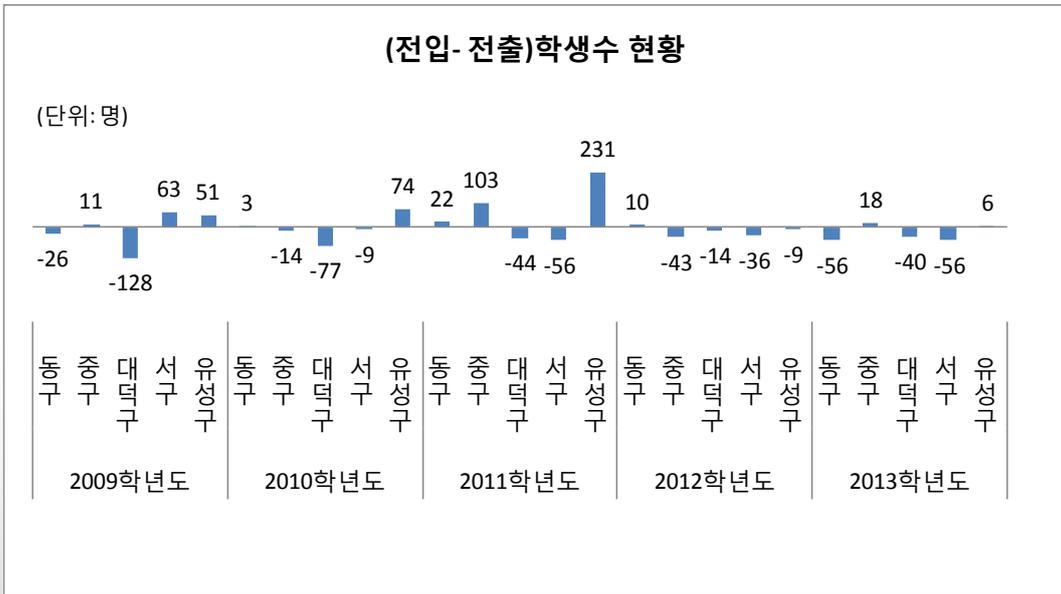
고등학교 유형별 비율(2014년)

교육통계 : 중학교 전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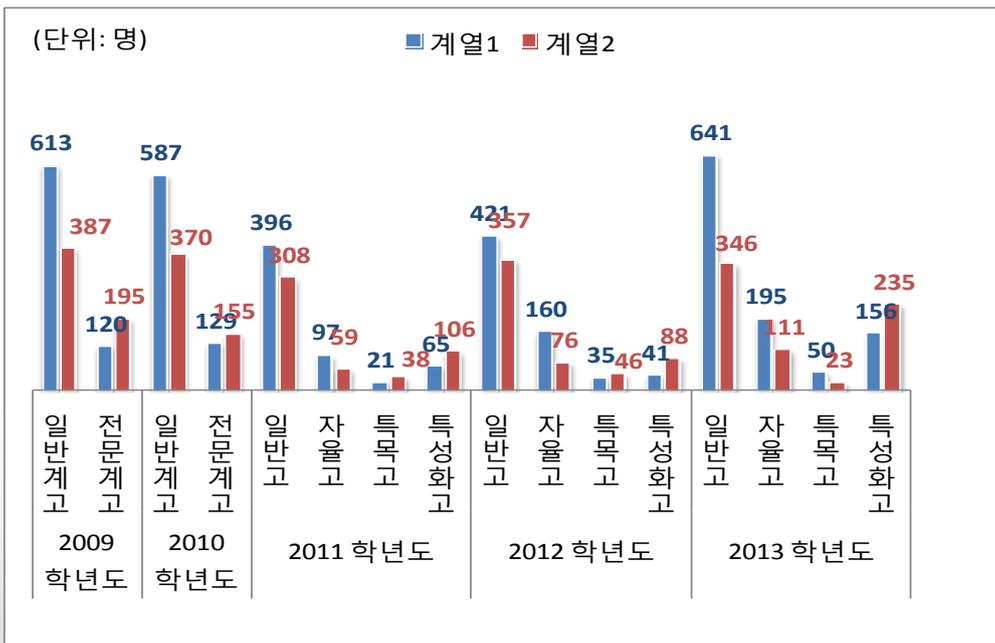
중학교 전·출입 현황

교육통계 : 중학교 전출입



중학교 전입-전출 학생수 현황

교육통계 : 고등학교 전출입



고등학교 전·출입 현황

교육통계 :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단위 : %)

지역	과목 등급 연도	국어				수학				영어			
		2010	2011	2012	'11/12 증감	2010	2011	2012	'11/12 증감	2010	2011	2012	'11/12 증감
동부	보통학력 이상	77.0	84.5	85.2	0.7	72.2	80.4	77.8	-2.6	78.5	88.5	89.9	1.4
	기초학력	21.5	14.9	14.4	-0.5	26.1	18.6	21.4	2.8	18.6	10.9	9.6	-1.3
	기초학력 미달	1.5	0.6	0.4	-0.2	1.7	1.0	0.8	-0.2	2.9	0.6	0.5	-0.1
서부	보통학력 이상	83.9	89.5	91.2	1.7	81.1	86.0	87.4	1.4	88.0	92.5	94.4	1.9
	기초학력	15.5	10.1	8.5	-1.6	18.0	13.3	12.0	-1.3	10.4	7.2	5.3	-1.9
	기초학력 미달	0.6	0.4	0.3	-0.1	0.9	0.7	0.6	-0.1	1.6	0.3	0.3	0
전체	보통학력 이상	80.8	87.3	88.8	1.0	77.2	83.6	82.8	-0.8	83.9	90.8	92.2	1.4
	기초학력	18.2	12.2	11.4	-0.8	21.6	15.6	16.5	0.9	14.0	8.8	7.4	-1.4
	기초학력 미달	1.0	0.5	0.3	-0.2	1.2	0.8	0.7	-0.1	2.1	0.4	0.4	0

대전시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출처 :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 : 중학교 학업성취도

(단위 : %)

지역	과목 연도 등급	국어					수학					영어				
		'11	'12	'13	'14	비교 증감	'11	'12	'13	'14	비교 증감	'11	'12	'13	'14	비교 증감
동부	보통학력 이상	80.9	83.0	83.8	84.1	0.3	59.9	62.4	58.4	59.4	1.0	66.5	68.5	66.5	67.7	1.2
	기초학력	18.0	16.0	14.1	13.3	-0.8	36.2	34.2	34.9	33.4	-1.5	32.3	29.1	29.4	28	-1.4
	기초학력 미달	1.1	1.1	2.1	2.6	0.5	3.9	3.4	6.7	7.2	0.5	1.2	2.4	4.1	4.3	0.2
서부	보통학력 이상	85.7	86.6	88.7	89.5	0.8	71.7	71.6	71	71.4	0.4	78.8	78.4	79.6	79.3	-0.3
	기초학력	13.4	12.4	10.3	8.5	-1.8	25.6	25.5	25	24.1	-0.9	20.5	19.8	18.1	18.2	0.1
	기초학력 미달	0.9	1.0	1	2	1.0	2.7	2.9	4	4.5	0.5	0.7	1.8	2.3	2.5	0.2
전체	보통학력 이상	83.6	85.0	86.6	87.1	0.5	66.7	67.6	65.6	66.2	0.6	73.7	74.1	74	74.2	0.2
	기초학력	15.4	13.9	12	10.6	-1.4	30.1	29.3	29.3	28.2	-1.1	25.4	23.8	23	22.5	-0.5
	기초학력 미달	1.0	1.0	1.4	2.3	0.9	3.2	3.1	5.1	5.7	0.6	0.9	2.1	3	3.3	0.3

대전시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출처 :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 :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단위 : %)

유형	과목	국어					수학					영어				
		2011	2012	2013	2014	비교증감	2011	2012	2013	2014	비교증감	2011	2012	2013	2014	비교증감
일반고	보통학력 이상	90.4	87.8	85.9	89.6	3.7	88.7	86.0	89.0	89.5	0.5	90.3	90.0	88.9	90.3	1.4
	기초학력	9.0	11.4	12.0	9.8	-2.2	9.3	11.0	7.8	6.8	-1.0	8.2	8.7	9.6	7.1	-2.5
	기초학력 미달	0.6	0.8	2.1	0.6	-1.5	2.0	3.0	3.2	3.7	0.5	1.5	1.4	1.5	2.6	1.1

대전시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출처 :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 : 초등학교 방과후

(단위 : 명, 개, %)

연도	지역	전체 학생수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돌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강좌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강좌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학급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지원 학생수	지원학생 비율
2010	동부	47,838	341	3,372 (7.0)	1,471	26,519 (55.4)	95	1,809 (3.8)	6,579	13.8
	서부	61,175	348	4,076 (6.7)	1,943	31,743 (51.9)	86	1,516 (2.5)	3,388	5.5
	계	109,013	689	7,448 (6.8)	3,414	58,262 (53.4)	181	3,325 (3.1)	9,967	9.1
2014	동부	38,579	989	10,955 (28.5)	2,296	32,148 (83.3)	196	3,958 (10.3)	6,297	16.3
	서부	52,548	1075	14,669 (27.9)	3,054	44,057 (83.8)	194	4,061 (7.7)	4,244	8.1
	계	91,127	2,064	25,664 (28.2)	5,350	76,205 (83.6)	390	8,019 (8.8)	10,541	11.6

대전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출처 : 대전시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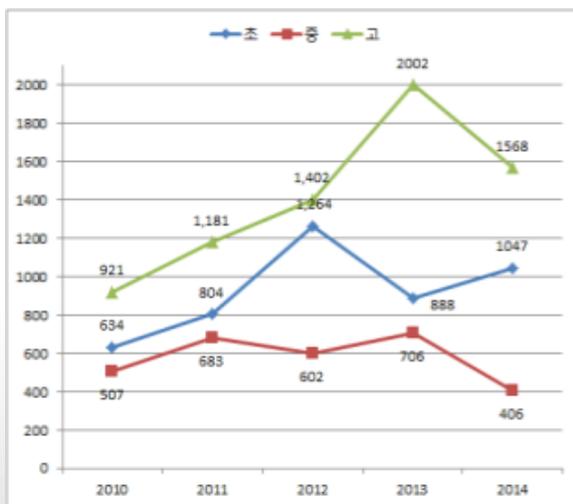
교육통계 : 고등학교 방과후

(단위 : 명,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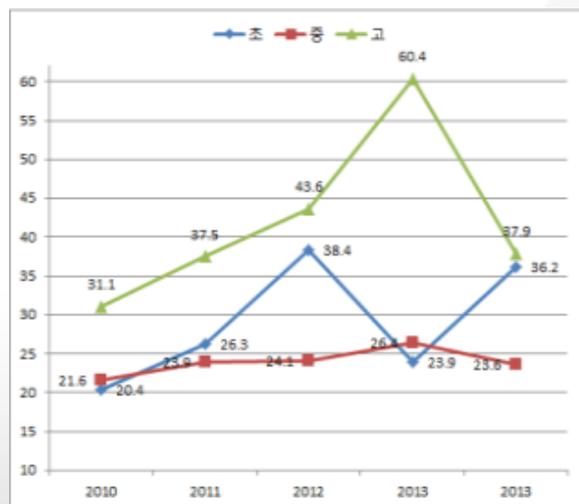
연도	전체 학생수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강좌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강좌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지원 학생수	지원학생 비율
2010	64,794	6,064	212,753	328.4	381	6,412	9.9	12,339	19.0
2011	64,132	7,464	245,116	382.2	324	8,336	13.0	5,653	8.8
2012	64,439	6,480	151,135	238.0	368	8,650	13.6	12,397	19.5
2013	63,806	6,478	158,720	248.8	503	9,948	15.6	10,754	16.9
2014	62,013	5,451	138,318	223.0	348	7,211	11.6	11,339	18.3

대전시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출처 :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 : 학교 동아리



대전시 학교 동아리수의 변화 추이



대전시 학교 동아리 참여율의 변화 추이

교육통계 : 학교폭력

(단위 : 건수, 명)

학년도	구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의 건수	피해 학생수	가해 학생수	학교당 심의수	심의 건수	피해 학생수	가해 학생수	학교당 심의수	심의 건수	피해 학생수	가해 학생수	학교당 심의수
2009	동부	1	3	2	0.01	49	97	122	1.26	62	84	165	1.02
	서부	1	1	6	0.01	86	123	231	1.83				
	계	2	4	8	0.01	135	220	353	1.57				
2012	동부	30	30	57	0.43	269	617	553	7.08	262	245	384	4.23
	서부	57	56	73	0.78	258	484	491	5.16				
	계	87	86	130	0.61	527	1101	1044	5.99				
2013	동부	32	45	53	0.46	229	425	354	6.03	242	239	380	3.90
	서부	39	39	58	0.53	185	288	417	3.70				
	계	71	84	111	0.50	414	713	771	4.70				

대전시 학교 폭력 발생 현황(출처 : 대전시교육청)

교육통계 :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지자체명	교육경비보조금 현황(단위: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계
동 구	2,688,785	1,903,732	1,996,468	6,588,985
중 구	2,115,285	1,839,718	3,322,574	7,277,577
대 덕 구	1,549,166	1,285,594	1,934,024	4,768,784
서 구	2,634,945	3,765,208	7,112,279	13,512,432
유 성 구	2,088,643	2,823,039	3,954,575	8,866,257
계	11,076,824	11,617,291	18,319,920	41,014,035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현황 동서간 비교(출처 : 대전시교육청)

I. 들어가며

□ 정책제안 과정

- ① 2014년 지방선거 당선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공약 검토
- ②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비교평가
- ③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워크숍을 통해 의견수렴

□ 기본 전제 및 향후 계획

- ① 학생/학부모 외의 교육주체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고 추후 정책협의를 진행할 계획
- ② 토론회와 설문을 통한 시민의견 청취
- ③ 2018년 대전시교육감 선거 / 대전시장 선거에 공약화하는 활동

I. 들어가며 - 법률의 규정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 들어가며 - 법률의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II.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1

교육비리 근절

- 부정부패 관련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독립된 감사시스템 : 상근시민감사관제도
- 학교청렴계약제
- 비리고발자 보호시스템
- 교육비리고발센터 설치
- 급식관리시스템 직영

II.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2

교육거버넌스

- 지지자 말고도 쓴소리 청취
- (가칭) 대전교육소통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와의 대화 창구 마련
- 중장기 대전교육의제에 대한 ‘대전교육포럼’ 개최

II.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3

동서교육격차 해소

- ‘1/N이 평등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
- 동구, 대덕구, 중구 지역의 작은 학교에 우수교육, 프로그램, 예산 지원
- 차등증액지원 :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은 300명 이하의 학교에 학교급식 재료비를 차등증액 지원하는 정책을 2016년부터 시행

II.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4

의무교육의 완전무상화

- 가난 입증없는 보편적 교육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8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 부모부담 공교육비 : 체험학습비, 방과후학습비,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교복비, 체육복비, 초등돌봄 완전 무상화

III.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4대 분야 / 17대 혁신과제

안전한 학교

함께 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안전한 학교 가는 길

- 학교주변 통학로 위험요소 제거 : 등하교길 안전진단
-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안전도우미 운영(일자리 창출)
- 안전 건널목 : 학교 건널목 속도계 필수 설치

강제 교통봉사가 아닌 공교육의 책임 : 녹색어머니회 강제 의무화 금지

녹색어머니회 의무조직 운영 관련 설문 취합

형태	응답	합계
희망자 조직(2016 현행)	96	331
전체 의무 조직(개선)	235	

※ 다른 의견 2건은 희망자 조직(2016 현행)에 포함시킴.

기타 의견 - 희망자 조직(2016현행) 17건 + (2)

1.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는 실질적 모자 가정입니다. 전체 의무조직을 해도 참가 어렵습니다. 늘 감사히 여기고 있사오니, 아침에 필요한 별도인력(경비 등)을 일정 시간만 활용한다면 필요금액을 분담하겠습니다.

2017 녹색어머니회 운영 안내



~ 중 략 ~

더구나 금년에는 시니어클럽 교통 봉사자 지원이 중지되었고, 학생 수 및 학급 수 급감 및 가정의 맞벌이 증가로 인하여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작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전교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녀들의 안전한 등교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 교통지도는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두 곳에서 이루어지며, 6학년에서 1학년 학부모님 순으로 두 분씩 날짜와 장소를 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후 략 ~

2017년 3월 3일

대전 OO 초 등 학 교 장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안전한 학교

발암물질 학교는 이제 그만

-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 : 공식적 운동시합을 천연잔디 구장이나 마사토운동장에서 진행하도록 체육기관에 요청
- 학교운동장 연간 1회 이상 토양검사(중금속 포함)
- 석면 시공된 교실 천정 전면교체

□ 대전시 학교 석면 교체 현황

- 2017년 84억여원을 투입해 19개교의 석면을 교체할 계획. 그러나 현재까지 전체학교의 30%에 그치고 있어, 70%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교실에서 수업중(출처 : 대전시교육청)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안전한 학교

발암물질 학교는 이제 그만

□ 대전학교 인조잔디·우레탄트랙 현황

- 2016년 대전지역 학교 전수조사에서 총 64곳 학교의 우레탄트랙에서 유해성분 검출
- 23개 학교는 마사토로 교체(2016년)
- 41개 학교는 우레탄트랙 재시공 예정(2017년 7월말까지)

□ 문제점

- 국가기술표준원의 강화된 내용의 새로운 우레탄 트랙의 안전기준(KS기준)을 따르더라도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음

□ 타지역사례

- 경남도 교육청 : 우레탄트랙 철거대상 학교 132곳 중 123곳 마사토 시공, 나머지 9개 학교도 흙운동장 전환 예정(흙 만질 권리)
- 광주시교육청 : 우레탄트랙 중금속 초과검출 된 54학교 중 35곳은 마사토 운동장 교체. 17곳은 교체중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안전한 학교

학교급식에 위해 요소는 안돼!

- NON-GMO급식 : 장류를 지역식량체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GMO가공품 배제
- 방사능 없는 급식 : 전체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학교급식안전관리위원회 가동
- 잔류농약, 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 먹는 물의 안전 강화 : 정기적 수돗물 검사 및 음수대 설치

※GAP와 HACCP는 식재료 안전의 기본이지 친환경농산물이 아님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안전한 학교

환경친화적 학교 만들기

- 옥상정원, 태양광 발전, 학교숲, 생태텃밭으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무더위 없는 교실
- 추위 없는 교실 조성

→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가능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줄세우기 · 경쟁교육 탈피

- 일제고사 완전폐지
- 강제·획일적 야간학습의 자율화
- 0교시 수업 폐지 : 9시 등교
- 입시학원 휴무제 중고생까지 확대 추진
-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 일제고사 현황

- 대전시교육청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한 표집학교(중8개, 고8개)와 선택학교 시행하기로 결정
- 세종 충남교육청 : 표집학교만 시행하기로 결정

□ 9시 등교 현황

- 2015년 대전시교육청 설문결과 : 일반고 학생의 77.3%, 교원의 65.5%, 학부모의 69.7%가 등교시각이 너무 이르다고 답변
- 정작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뒤쳐지는 학생 없는 학교

- 또래학습 활성화
- 학습 멘토링 강화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체계 구축 : 숙려제도, 대안교실 등

□ 기초학력 미달 현황

- 초등학교 : 동부 0.6%, 서부 0.4%
- 중학교 : 동부 4.7%, 서부 3.0%
- 고등학교 : 수학 3.7%, 영어 2.6%

□ 학업중단 현황

- 초등학교 0.8%, 중학교 0.9%, 고등학교 1.6%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거리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 평생교육, 시민교육
-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청소년인권교육센터 : 청소년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 생명윤리교육
- 대전역사교육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꿈과 희망을 찾는 진로교육

- 자유학기제지원센터 : 홈페이지로서가 아니라 별도의 기구로서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연계형 진로직업체험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진로직업체험센터 : 거버넌스 형태의 다양한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에듀버스를 도입하여 활용도 높일 것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 통폐합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 도농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친환경에너지학교, 귀농학교, 아토피학교, 다국어교육학교 등으로 다양화
- 작은학교 에듀버스 운영
- 보건교사 배치 등 안전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조치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장애학생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장애학생 진로적성 탐색활동 별도 지원체계 구축
- 특수학급 전공교사 배치비율 확대, 지원체계 강화
- 통합교육 확대
- 장애아동 의무교육 지원 강화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함께 하는 학교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교육

- 다문화 친화학교 운영
- 다문화 급식 : 주기적인 다문화 급식, 식생활 교육
- 다문화부모강사
- 다문화학생의 어머니나라 방문 및 봉사활동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문화 진로체험활동
-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추진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행복한
학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 강제된 학부모봉사 NO,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학부모동원 금지
- 학부모지원센터 : 생애 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시설과 연계한 교육, 학부모아카데미,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
- 직장인 부모의 학교참여 활동보장을 위한 조치
- 학부모 주문형 강좌 개설 : 카페테리아식 강의 구축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행복한
학교

학생 자치활동 강화

- 학생자치회실 확보 및 자율적 운영 보장
- 동아리 활동실 확보로 다양한 동아리 지원
- 학생회에 예산의 편성, 운영권 부여
- 학생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보장
- 학교 교칙 개정시 학생의견 청취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행복한
학교

학생 예체능 활동 지원

- 악기구입 지원 및 악기 대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체육과 음악을 즐기는 학생으로 성장
- 예체능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 타지역 사례

- 전북교육청 : 각 급 학교에 악기 구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부산교육청 : 1인 1악기 인증제 실현 위해 학교에 악기 대여
- 울산교육청 : 1인 1악기, 1학생 1스포츠 정책
- 경북교육청 : 1인 1악기 운동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전국평균수준 확대

- 문재인 정부 공약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수 40% 수준에 맞춰야 하고, 중장기적 대책 수립
- 공립유치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 : 서민 밀집지역에 단설, 병설 유치원 확대 설립. 최소 공립유치원 비율이 30% 확보 필요
-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민간어린이집, 민간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여 공공성 확보

□ 현황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12.1%, 대전은 3.9%(2016년). 2012년 28곳에서 5년간 5곳 증가에 그침
-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은 24.2%, 대전은 18.5%(2016년) 2014년 93곳에서 설동호교육감 임기 동안 3곳 증가에 그침

* 유-보통합의 전제에서 서술함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전국평균수준 확대

구분	원 수	학 급 수	원 아 수
총계	269	1,299	25,921
공립	96(35.7%)	247(19.0%)	4,788(18.5%)
사립	173(64.3%)	1,052(81.0%)	21,133(81.5%)

2016대전시 유치원현황(출처 : 대전시교육청)

구분	총계		국공립		민간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1,584	44,482	33(2.8%)	1,734(3.9%)	1,551(97.2%)	42,748(96.1%)

대전시 어린이집 현황(출처 : 대전광역시 2016.12.31.현재)

* 민간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운영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내용

2016대전시 유치원현황(출처 : 대전시교육청)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전국평균수준 확대

서울신문
[단독]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밀'
입력 2017.06.22. 03:36

30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93%..서울 23%보다 4배 이상 높아

[서울신문]안정적 소득·주거 공무원 도시...가임기 여성 많은 것도 주요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2016년 현재

전국	24.2%
세종	94.7%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 2016년 현재

전국	24.2%
세종	94.7%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2016년 6월 기준

전국	66.5%
세종	51.9%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율 2012~2016년

전국	29.7%
세종	180.0%

(자료: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혁신/ 교사혁신/ 교육공동체

- 학교혁신, 교사혁신을 통한 혁신교육 확대 : 혁신학교 지원조례에 충실할 수 있는 혁신학교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향
-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공교육과의 연계를 봉사에서 민관협력으로 방향 수정 필요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혁신/ 교사혁신/ 교육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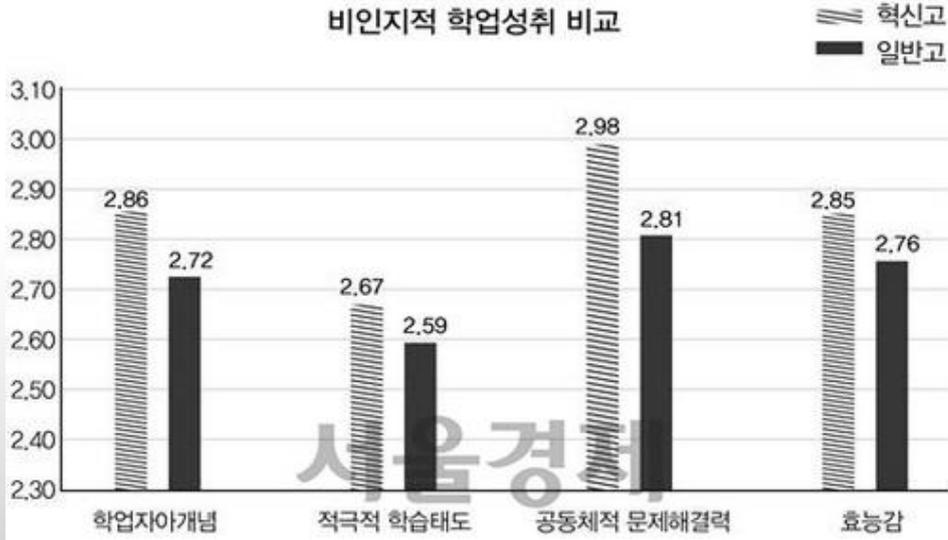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명칭	도입 연도	혁신학교 수(2017.2월 현재)			
			초	중	고	계
경기	혁신학교	2009	234	147	54	435
서울	서울형 혁신학교	2011	109	33	12	154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	2011	26	15	4	45
전남	무지개학교	2011	64	20	3	87
전북	전북혁신학교	2011	100	44	14	158
강원	강원행복+학교	2011	22	13	6	41
충남	행복나눔학교	2015	23	14	8	45
충북	행복씨앗학교	2015	2	6	1	9
경남	행복학교	2015	13	6	2	21
부산	다행복학교	2015	18	8	3	29
세종	세종혁신학교	2015	5	4	1	10
인천	행복배움학교	2015	20	9	1	30
제주	다흔디배움학교	2015	12	7	2	21
전체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길혜지 2017.)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혁신/ 교사혁신/ 교육공동체



출처 : 서울경제신문

Ⅲ.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 제안

공교육의 정상화

행복한 학교환경 조성

- 학급당 학생수 적정규모
- 교과·교육과정 혁신
(토론 협력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
-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제도 구축

IV. 제언

핑계가 아닌 방법

시간이 되면……
날씨가 좋아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준비가 되면……

‘조건이 되면’ 하겠다는 핑계는
‘하기 싫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패하는 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하는 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

토론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최한성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선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사무처장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전교육을 바라며

박병철(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

들어가며

두 발제문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잘되고 있음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본 대전교육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이 바로 교육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미래교육을 향해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학 입시위주의 줄서기 교육만을 지향하고 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옆 친구가 하니깐 엄마가 시키니까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간다.

오늘의 주제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란 과연 무엇일까? 토론자는 이건희 발제자의 발제문에 제안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조건 관련

대전교육의 교육거버넌스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어 대전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있어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토론자를 포함해 13명의 위원이 위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

책 결정에 실효성 있는 자문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복비지원은 지난해부터 토론자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다. 지난해 9월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교육감에게 촉구했고, 지속적인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대전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지원이 추진된다. 이번달에 열리는 제 232회 임시회에서는 교복비지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2017년 현재는 <표1>과 같이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8년부터 사업을 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중1, 고1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5억여원의 예산 규모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기금 등 여건에 따라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금액이 유동적으로 운영되던 교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전체 신입생에 대해 지원하는데까지는 정책이 미치지 못하지만 저소득층부터 안정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표1> '17년 대전시 자치구 교복비 지원 현황(대전시교육청 제공)

자치구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인원(명)	지원금액
동구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1, 고1	350	20만원
		중1, 고1	350	10만원
중구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1	181	25만원
대덕구	교육급여, 한부모	고1	168	20만원
서구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1, 고1	40	25만원
유성구	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1, 고1	350	25만원
합 계			1,439	

대전교육 혁신과제 관련

올해 초 대전시교육청은 길현분교 통폐합을 시도했고, 이 사례는 불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과의 충

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속한 통폐합을 시도하려 했었다. 지난 1월 길현분교 통폐합 건이 대전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4월 제 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토론자는 설동호 교육감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기준 추진 방향과 주민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전면 재검토와 향후 추진할 기본계획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7월 현재 대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연구용역 이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새정부 출범으로 교육부의 정책방향도 함께 고려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표2>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 (2015.12.31. 교육부)

구 분	종 전	개 선	
면·도서·벽지지역	60명 이하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아직 기본계획은 미수립된 상태이지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 <표2>의 교육부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을 분석해보면 <표3>과 같다. 즉, 2017년 7월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28개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표4>와 같이 학령기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우리시만의 작은학교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3> 대전광역시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

2017.4.1. 기준

구(區)	초등학교명(학생수)	중학교명(학생수)
동구	대전삼성초(202명) 동명초(65명) 대전동광초(184명)	대전용운중(255명) 한밭중(183명) 동신중(145명)

	<p>산흥초(71명) 대전자양초(209명) 세천초(43명) 대전용운초(218명) 대전대암초(187명)</p>	<p>보문중(240명) 우송중(244명)</p>
중구	<p>대전선화초(172명) 산서초(80명) 대전문창초(203명) 대전대신초(81명) 대전보운초(206명) 대전문성초(204명)</p>	<p>대전대문중(121명) 호수둔여자중(270명) 대전중앙중(297명) 청란여자중(99명) 동명중(110명) 대전신일여자중(293명)</p>
대덕구	<p>장동초(64명) 대전동도초(213명) 대전석봉초(150명)</p>	<p>회덕중(202명) 오정중(138명) 신탄중앙중(296명) 경덕중(178명)</p>
서구	<p>기성초(77명) 기성초길현분교장(19명) 대전성천초(159명) 대전수미초(178명)</p>	<p>대전서중(193명) 갈마중(162명) 대전도마중(280명) 대전봉산중(293명) 가수원중(203명) 기성중(60명) 대전월평중(240명) 대전정림중(228명) 대전삼육중(219명)</p>
유성구	<p>유성초(239명) 학하초(82명) 덕송초(195명) 봉암초(88명) 대덕초도룡분교장(90명) 남선초(40명)</p>	<p>대전자운중(163명) 대전새미래중(173명) 대전덕명중(218명) 성덕중(300명)</p>

<표4> 2000년 ~ 2030년 대전 학생수 추계

(단위 : 천명)

급별	2000년	2010년	2016년	2020년	2025년	2030년
초	126	109	86	88	90	88
중	60	66	47	43	44	45
고	66	65	57	49	44	44
계	252	240	190	180	178	177

* 2000 ~ 2016년 : 교육통계 4월 1일 기준

** 2020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반영(<http://rcps.egov.go.kr:8081>)

*** 2025 ~ 2030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3 ~ 2040 (<http://kostat.go.kr>)

출처 :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6.10.14. 대전광역시의회) 토론자료집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표5,6>과 같이 약 2,000여명의 다문화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표7,8,9>와 같이 현재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강화, 다문화교육 다누리 지원 체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오는 7월 20일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주관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다문화시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를 통해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모색해 다문화교육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5> 다문화학생 현황

(2016.4.1. 기준, 단위: 명)

구분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합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초등학교	1,361(134교)	79(37교)	138(36교)	1,578(138교)
중학교	200(62교)	23(16교)	36(15교)	259(66교)
고등학교	141(42교)	10(9교)	24(13교)	175(48교)
계	1,702(238교)	112(62교)	198(64교)	2,012(252교)

<표6> 구별 다문화학생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계
초등학교	299	341	280	355	303	1,578
중학교	35	50	41	62	71	259
고등학교	12	29	58	36	40	175
계	346	420	379	453	414	2,012

<표7> 2017학년도 다문화 이해 제고(모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순	사업명	일시	해당 기관	비고
1	•단위학교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다(多) 함께 행복한 어울림-	2017. 3.~12.	전학교	-학교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편성·운영 -학교 장학지도시 확인
2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2017.5월 중	전학교	-학교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3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실시	연중	대전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집합연수
4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2017. 6.~8.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향후 교육부 계획에 의거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5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2017. 10월 중	시교육청	
6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2017. 4.~12.	유·초·중 희망학교 (300학급)	-별도 안내 예정
7	•행복문화만들기 다누리 학생동아리 운영	2017. 4.~12.	초·중 25팀	-별도 안내 예정
8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2017.3.~ 2018.2.	대덕초, 대전흥룡초, 대전정림중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추진

<표8> 2017학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순	사업명	일시	해당 기관	비고
1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2017.3.~ 2018.2.	대전대화초, 대전흥룡초, 산내초, 대덕초, 대전자운초, 대덕중	-시교육청: 계획 수립 및 안내, 예산 지원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운영 지원
2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2017.3.~ 2018.2.	초·중·고 12교	
3	•이중언어교육지원	2017.3.~ 2018.2.	초 30교	-해당 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	•다문화학생 및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2017.3.~ 2018.2.	초·중 7교, 총 14학급	
5	•멘토링 지원	2017.3.~ 2018.2.	단위학교, 관내 대학교, 시교육청, 한국장학재단	-별도 안내 예정
6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운영	2017.3.~ 2018.2.	시교육청,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표9> 2017학년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지원

순	사업명	일시	해당 기관	비고
1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서 보급	2017.3.~ 2018.2.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2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2017.3.~ 2018.2.	단위학교	-필요시 통역서비스 제공 (문의: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3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2017.3.~ 2018.2.	시교육청, 동·서부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가며

지난해 타계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몇해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육에 대해 뼈아픈 경고를 한 바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눈에 비친 한국 교육은 과거 속에 갇힌 특이한 교육으로 보인 것 같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우리 대전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토론자의 그 당시 교육현장과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의 교육현장은 교육기자재만 바뀌었을 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발표한 『2016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결과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22위로 최하위임이 나타났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해야 할 책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정부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약속한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최상위 가치로 하는 대전교육의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

[시행 2017.4.28.] [대전광역시조례 제4914호, 2017.4.28.,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042-616-8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의 입안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대전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3. 대전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전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14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교복을 착용하는 대전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전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이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꼽는 대전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성광진(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지난 3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등 각종 정부사업 평가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뒀고, 이는 바로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교육혁신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알파고가 등장하고,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진보냐 보수냐 이념만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보수”라며 “지금 대전교육엔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래 우리 아이들이 적성과 소질을 살려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전한 교육감의 말이다. 그런데 과연 교육감이 말한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의 대전 교육을 위해 무엇을 혁신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그가 말한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무엇을 길러주었는지에 대해 현장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과연 무엇이라고 답할까?

정책기획관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유·초·중·고 대학 연계 교육”과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계 교육은 교사와 학부모를 초청해 사설 입시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수준으로 초·중고 연계 Edu-Bridge 특강이라며 학교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실정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것도 뜬 구름 잡는 것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이 없다.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전시적 행정으로 교사와 학생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학교의 교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현장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의 학교는 입시경쟁교육과 성적지상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되어야 하지만 대전교육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다음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꼽는 대전 교육의 문제점이다.

1.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자는 21세기형의 새로운 학교 모델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학교는 50년 전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장 중심으로 지시 전달 위주의 학교 경영과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가기에 바쁜 교사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2.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5년을 끌어온 전교조와의 단체교섭도 법외노조를 기다렸다는 듯이 끝장내고 말았다.

더욱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부모단체들이 교육청과 협의할 창구도 없고 그 많은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교사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없고, 학부모들의 건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미담 하나 들을 수 없다. 오로지 학교장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그들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왔다.

3. 성적지상주의적인 학습 강요가 여전하다.

학교의 존립 목적이 오로지 성적을 높이는 데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기하며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도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강제적인 야간과 휴일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장은 참여학생이 적으면 교사들을 다그치고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 학교에 의한 학습 강요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학습강요 행위는 대전지역이 가장 극심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훌륭한 것도 아니다.

4. 잡무로 인해 교사들이 교수-학습에만 전념할 수 없다.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비교과영역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폐지하여 교사들에게 잡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교육감이 치적처럼 내세우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교사들이 실적을 만들고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결국은 수업과는 별 관련없는 것으로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다.

5.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 의지가 없다.

교육청은 유난히 비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대성학원의 비리와 예지중고 사태에서 보듯이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처리를 미루다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대전봉산초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으로 못매를 맞았지만 급식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의 각종 인사도 정실인사를 벗어나지 못하여 대외로 투서가 나오는 등 문제가 많다.

6.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려는 구체적 노력이 없다.

이제는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국영수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와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역사회(마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은 여러모로 가능하기도 하고 내용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 지역의 유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한 삶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 관점에서 살펴본 발제문 비평

- 대전교육정책 토론회 토론문 -

최한성(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어느 국가나 사회도 수많은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져있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에 의하여 작동한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문제라고 이야기될 때에도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고 표면과 이면에는 수많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을 교육공화국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한국에서 교육 문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 보다 심각하고 해결 방안 찾아내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본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정책 토론회를 갖고 대전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마칠 때 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의 주위를 이루는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지인, 동료, 공동체 구성원, 폭을 더 넓히면 지역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지역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삶의 여정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복한 삶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구체적 실천 단위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발제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발제 글 비평

2.1. ‘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제문은 공약에 대한 정의, 교육감의 공약과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약에 대하여 국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라고 규정하면서 실행 가능한 공약,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주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라고 제시하였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이란 국민과의 기본적인 공적 약속이다. 어떤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책임행정, 참다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공약, 미래비전을 제시해주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선거과정을 거쳐야 하며, 선거과정 중에 이에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다. 당선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현행법과 선거체제를 인정한다면 발제문에서 밝힌 의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발제기고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행 가능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주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전제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당선되기 위한 선거 전략과 공약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선거 관련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길과 그 방향을 찾아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제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찾아가는 길의 방향이 달라지면 전혀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결국 헤매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미래비전으로 제시된 대전 교육의 방향은 성공시대로 표방되었다. 그러나 성공시대 혹은 성공이라는 비전에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근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병폐를 청산할 수 없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이상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이러한 슬로건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출세지향,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오직 1등, 경쟁과 도태 등 우리 사회와 교육에서 바로 마주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와 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앞으로의 세상과 사회에는 적합하지 못한 교육 철학과 목표라고 여겨진다.

목표와 지향점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도출되는 공약들은 연관성이 결여되고 공허하거나 현란한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헛된 공약과 실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남발되는 헛된 공약은 조금이라도 잘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금새 알 수 있다. 민주주의제도가 시행된 지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걸었던 우리 국민은 공약의 허와 실에 대해 누구보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공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공약을 100%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늘 상황은 생각과 같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역기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지만 그렇기에 우선 공약(空約)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선거기간에 임박해서 만들어지는 표를 얻기 위한 인기성 공약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약의 도출 과정에서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시각과 전망에 대한 상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거나 우선순위의 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약 도출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선거라는 현실적인 제약 상황에서 보다는 교육의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고문의 본문에서는 교육감의 공약으로 이행계획과 공약 이행 평가로 나누어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 97개 세부사업으로 고찰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총장으로 40여 년간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고자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 97개 세부사업의 이행 계획을 마련”.

“학생, 교사, 직원,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과 수십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대화를 통해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 복지, 선진형 학교 문화의 5대 공약 43개 핵심과제를 주요공약“

5대 공약은 슬로건으로 내세운 ‘대전 교육 성공시대’와의 유기적 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43개 핵심과제와 97개 세부사업도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별로 없이 구호를 나열한 것으로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와 세부사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 현실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대략 나열한 것처럼 판단된다. 그럼에도 5대 공약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실행된다면 그 자체로서 좋은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약 이행 평가 부분에서는 유·초·중·고·대학 연계 교육(86%),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9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86%), 미래형 교육 복지(57%), 선진형 학교문화(89%) 이행율을 수치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적으로 남기기 위한 행사, 보여 주기위한 겉치레 행사로 보여지며, 업적 평가도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별 사업으로 공립대안 교육기관 설립과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과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하여서는 5대 공약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며, 더 좋은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없다. 공약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으나, 대전시 교육청의 행정적인 문제 상황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징계와 그에 관련된 절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비정규직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대전시교육청 현안으로 판단된다.

2.2.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안)

두 번째 발제 “대전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안)”는 글머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순서가 매겨진 학벌사회, 경쟁만을 강조하는 대학입시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본론 전반부에 대전교육 혁신의 4대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은 교육비리 근절, 교육거버넌스 구축, 동서교육격차 해소,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들었다. 각주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중요 전제조건으로 보기보다는 교육 혁신의 하나의 과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대전이라는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혁신의 대상으로서 특수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행정체계 혁신항목들로 분류되어도 좋을 것 같다.

본론 후반부에서는 4대 분야 15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4대 분야로서 안전한 학교, 함께하는 학교, 행복한 학교, 공교육의 정상화를 들고 하위 개념으로 15개 과제가 언급되었다. 적절하고 시급한 문제들이다. 실천 과제들은 다시 분류되어 정리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책과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도 당연한 명제라서 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목표 및 설정과 그에 대한 근거제시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것을 통하여 이룩하고 달성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제시되면 좋을 것 같다. 추가하여 제안하면 4대 분야 중 함께하는 학교와 행복한 학교를 큰 분야로 묶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몇몇의 추상화된 개념은 쉽고 간결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용어와 관련하여 주로 학교에 관련된 것이지만 교육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마무리

한국의 많은 부모와 학교는 자녀나 학생의 소질과 인성, 민주적 시민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속적인 출세에 교육의 목표를 둔 광풍이 학교와 교육이 몰아치고 있다. 잘못된 기성세대 욕심이 후속세대의 미래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나라가 희망을 갖으려면 교육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면 이것도 또한 교육을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찾아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김봉구(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관장)

대전시 교육청이 운영중인 다문화 거점센터와 거점학교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중도 탈락자에 대한 교육 안전망 확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정도가 전부고, 외국 어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정도가 전부다. 이에 교육 안전망 확보 방안으로 다문화 공립학교(국제언어학교, 외국언어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폐교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의 교육의 의무를 다함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학생들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이다.

다문화가정은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사교육 여력이 없어 내국인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측면과 모친이 제3계 출신이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대처가 필요하며, 다문화교육은 교육복지에서부터 내국인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국가 연계성 까지 말 그대로 Global Local=Glocal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는 또다른 기회요 사회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1. 다문화 공립학교 전국 설립 현황

- 1) 인천시 교육청은 2010년 11월에 계획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다문화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했다. 280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개 학급, 학급당 15명으로 정원 210명의 다문화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해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문화가구의 모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등 경쟁력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학교를 설립하고 고교 미진학이나 중도 탈락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력과 취업 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인재로 키울 목적을 갖고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학

력인가 다문화학교를 개교해 운영하고 있다.

학급은 학년당 2학급씩 3개 학년, 총 6학급(학급당 20명)으로 입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다.

3) 경기도 교육청은 포천 다문화국제학교를 운영중이다.

4) 충북 교육청은 충주에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다문화 기술학교를 운영중이다.

2. 대전시 다문화 교육과제

1)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의 다문화 공립학교 설립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다문화학교 설립을 공론화하고 각종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7월 2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공립학교 신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전시의회(박병철 교육위원장) 복지인권운동본부(김병구 본부장) 대전시 사회복지협회(유광운 회장) 공동주최로 2017년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2) 각 학교에 다문화학급 설치를 통한 부적응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한 적응훈련이 요구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의 모국어 이중언어교육 등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심화, 확대해야 한다. 이주여성들을 이중언어교사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해야한다.

4) 공교육 교과과목에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해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다문화 교사 양성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률과 조례에 의한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7) 거주외국인들 한국어교육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8) 아시아국가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와 상호협력 모델을 창출한다.

다문화가정 학생,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과 연계 국가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간의 다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9) 다문화거리를 조성해 학생, 시민 등 다문화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

다문화거리에는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식당, 다문화카페, 다문화박물관 등 특화거리를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 다문화 체험 학습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10) 각 교육청과 각 학급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11) 각 학교 다문화 급식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구체화한다.

2014년 6·4 지방선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비후보 특수교육 정책 답변서 정책이행평가

김선숙(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사무처장)

1. 대전광역시 교육청 본청에 특수교육과를 신설.

1-1 특수교육과에는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환교육에 따른 특수교육전문직을 각각 배치.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현행 초등교육과에서 유아·특수교육과를 분리 독립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
이행 평가
특수교육의 숙원인 '과' 설립은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 언제쯤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내 장학관, 장학사, 인턴장학사, 교사, 주무관 인력 구성 위 인력구성조차 힘겨운 과정으로 만들어짐

1-2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특수교사 출신 전담 장학사를 배치.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지역교육청에도 특수교육 전담장학사 배치 적극추진 필요
이행평가
여전히 동·서부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는 특수교육전공자가 아니며, 그럼에도 짧게는 수개월 길면 2년 정도 후 부서이동 업무파악이 되거나 되기도 전에 담당인 력이 바뀌고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독립.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p>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기보다는 중구 산성동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가칭)대전유아·특수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p> <p>아울러, 추진업무는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특수교사 연수전담,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충 대전가원학교의 대전 전환교육지원센터 이전 등 특수교육의 전문화 절실</p>
이행평가
<p>동구 홍도동 전교조(교총함께였던)건물을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 4층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계획을 밝힘, 2017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신축에 가까운 설계변경, 201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함.</p>

3.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과학벨트 내 특수학교 개교.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p>대전북부 지역(과학벨트 포함)에 중·고·전공과 중심의 특수학교 신설로 특수교육 수요증대에 따른 수요자 욕구반영 및 수혜율 증진</p>
이행평가
<p>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덕구 용호동 55(구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에 34학급 208명 규모의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와 지적장애·지체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추진 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유로 1년 연기 2021년 3월 개교로 변경</p>

4.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특수직업교육 특성화 고등과정 특수학교'를 개교. 수용여부 (효율적 대안 강구)

후보자 의견
<p>대전의 공·사립 전문계고교(특성화고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특수직업 맞춤형 교육을 운영(공립 6개교, 사립 4개교)</p>

이행평가
<p>동신고(신설), 호수돈여고(신설), 동대전고(증설), 송촌고(증설) 위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학급신설, 증설됨 특성화 경우 신설이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특수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음</p>

5.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와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개최. 수용여부(효율적 대안 강구)

후보자 의견
<p>장애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 협력하는 (가칭) 대전 특수교육기관단체연합회를 만들어 특수교육발전 협의회 구성 필요</p>
이행평가
<p>협의회 구성 안됨. 특수학교개교추진위, 보조인력(실무원 외), 학급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함.</p>

6.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장애학생을 대상 방학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여 관리하고 그 예산을 지원.

6-1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방학 중 계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전문 특수교사 지원.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p>현재 학교별로 추진하는 동·하계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보다는 학교 급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테마별, 주제중심의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가칭)대전유아특수교육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개편 필요</p>
이행평가
<p>특수학교 5곳(가원, 맹, 혜광, 성세, 원명, 1079명) 예산 3억4천</p>

2264명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지원 없음

대전시청이 지원 240명에 대해서는 특수학급, 학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음

특수학교의 재학생 경우 계절학교 110명정도 오고 있음 특수학급수혜혜택은 130명 정도임, 그 외 복지관, 일부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초등학생, 중학생 장애학생 학급에 방학 중 계절학교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6-2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여부(○)

후보자 의견

장애영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의 특성 및 장애의 정도에 따른 **전문기관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해야 함.

이행평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특수학급 중도 중복 장애학생전환지원프로그램 시행 중 고3학년 중심으로
혜광,가원 -9백, 성세,맹-5백, 원명 직업교육 중점시범학교 2년차로 1천7백지원
*긍정적행동지원-4천 (가원,혜광,원명-각1천만원, 맹,성세-각5백씩)

상기 본인은 귀 법인에서 전달한 장애학생 특수교육 정책 제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고등으로 갈수록 과밀되는 특수학급, 그에 다른 학급증설, 그에 따른 직업전환교육, 특수 학교설립,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방학 중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부 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독립, 특수교육과 설치 등 그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않았던 정책들, 지난 4년여간 정책안을 조금이라도 실행시키기 위해 수없이 교육청을 들어갔고, 교육감 면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멈춰진 시계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교육청 시간! 세상과 반대로 돌아가는 교육의 시간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당장' 이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듯이 법에 근거한 특수교육관련지원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2018년 교육감선거 정책제안 (안)	
1	대전광역시 교육청 본청에 특수교육과를 신설
2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인상 건
3	특수학급 2학급이상 학급에 대한 추가 진로직업교사 배치 건
4	방과 후 교육활동비 인상 건
5	치료지원 확대 건
6	장애학생 방학 중 계절학교 지원 건
*	***** (정책은 계속)